

“알찬기획 풍성... 문화포교 밝다”

'97년 불교문화계 전망

한층 다양화하고 고질의 문화를 추구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불교문화계 역시 각 장르별로 다양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고교의 오랜 숙원이었던 조계종 문화부가 독립됨에 따라 문화관광업계가 세분화 전문화되어 불교문화 진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준비되고 있다.

올해는 문화재관련 대형 학술회의를 비롯 다양한 주제의 학술회의가 풍성할 전망이다. 출판계는 계속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알찬 기획으로 승부를 걸고 있다. 또한 각 분야의 문화동우회가 구성돼 문화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음악·미술·연극
교계 최고의 미술작가등용인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이 올해는 파격적으로 오른 상급과 함께 전문전시관인 공평아트센터에서 오는 3월19일부터 개최된다.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일년내 불교주제의 전시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제화시대를 맞아 불미질의 덴마크전, 고영을씨 파리행화전 등 해외에서의 전시회도 부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음악계는 올해 대형무대가 3개 이상 준비되고 있다. 조계종이 주최하는 창작불가경 공연대회가 오는 11월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펼쳐

진다. 오는 9월 23일 예술의 전당에서는 한국불교음악연구회(회장 정부기) 주관으로 '찬불가합창과 가곡의 대향연'을 개최한다. 지난해 국립극장에서 초연되어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는 김희경 작곡의 국악교곡 '불발에 피는 꽃'도 오페라로 재편곡되어 대형극장에서 올려질 예정이다.

또 오는 10월 예술의 전당에서는 불교를 포함 개신교 천주교 등 각종교가 참여하는 범종교문화예술축

해외전시 잇달아...종교화합 행사 '눈길' 3월 세계승가공동체 학술대회 '관심' 저작권법 악재로 출판시장 위축될듯

제가 열릴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한편 초의스님의 달로 지정된 5월에는 전시회, 차 세미나가 열리며 다시백일장, 고려연등이식이 장엄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또한 지난해 '달아와 잣나무'라는 중후한 연극으로 호평을 받은 바 있는 극단 완자무는 오는 6월 또한번 불교연극을 무대에 올린다. 원담스님이 쓴 심우도시리즈 제2탄이 준비중인 것. 영산재보존회는 단오날 영산재시연 행사를 여법하게 치르며 이에 앞서 오는 4월에는 캄보디아의 쉐리필드

에서의 초청공연도 계획되어 있다.

학술·문화재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한국불교학회, 한국종교학회, 한국미술사학회 등 각 학술단체가 봄, 가을로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모두 20여건 이상의 학술대회가 개최될 전망이다. 가장 주목할만한 것으로는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이 오는 3월 '세계 승가공동체의 교학체계와 수행체계'를 주제로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 또 한국불교연구원,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을 비롯해 각 불교단체들이 범종교 학술대회를 예정해 놓고 있다.

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판
올해도 출판계의 전반적인 불황과 지난해 7월 개정 저작권법 발효 등의 악재를 의식, 새로운 대형 기획물보다는 기존 시리즈물을 계속 펴내는 수준에서 조심스런 불서출판이 예상된다. 즉 자체출판과 함께 제작대행을 결합하면서 국내 학술서보다는 번역 학술서를 더 많이 낼 것으로 보인다. 법·수필·설화집 등 가벼운 책들이 올해도 강세를 띠 전망이다. 인문학은 <한국의 고승(전 30권)> 시리즈 원고집필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출판에 들어가 99년까지 완간할 계획이다. 또 <한국기림의 연구> <한국의 불교미술> 등 무거운 불교미술서와

<화엄론 정요>의 최초번역, <선시 감상사건>의 출간을 준비중이다. 불교시대사는 '불교화 세미나' 시리즈 3권과 '현대고승법문집' 2권을 출간하는 한편, <불교의 수용과 변화> 시리즈 6권을 펴낸다.

불교영상문화보사는 2달에 한권씩 <구산선문>시리즈를 출간하면서, 역대고승총서로 <도선국사> <원효대사> <수월스님 전기>와 <한국불교사상전집> 등을 펴낸다. 시공사는 시공불교총서를 계속 발간하면서 '시공불교경전' 시리즈를 새로 기획했다. 장경각은 선림고경총서 속집으로 <오동회원> 10권과 <명후회요> 3권을 출간한다.

이경숙·한영우·김재경 기자



◇ 지난해 11월 국립극장대극장에서 초연되어 큰 호응을 받은 국악교곡 '불발에 피는 꽃'. 올해 오페라로 편곡되어 재공연될 예정이다.

승무 인간문화재 이애주씨 지정

문화체육부는 구랍 31일자로 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의故 한영숙씨를 예능보유자로 이애주씨(50·서울대 사법대 교수)를 지정했다. 7세때부터 김보남씨에게 승무와 궁중정재, 춘앵무 등을 배운 이씨는 지난 89년 한영숙씨(1920~1989)를 만나 한성종재 승무를 배우다 71년 이수자가 됐다. 이애주씨는 오는 25일 국립민속박물관 강당에서 '한성종재 승무' 공연을 갖는다.



이애주씨 인간문화재 지정은 지난 89년 한영숙선생이 타계한 후 8년만의 지정이어서 본격적인 전승의 길이 열렸다는 의미가 크다.

“목불조각 체계화 필생 과제죠”

무형문화재 목조각조 지정 박찬수씨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장인이라면 누구나 궁극적으로 꿈꾸는 인간문화재가 되었으니 기쁘기 한량없지만 더욱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 모두가 부처님의 가피인 것 같습니다. 이번 인정을 계기로 더욱 열심히 공부해 국민 모두가 삼귀의(三歸依)할 수 있는 훌륭한 성보를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구랍 31일자로 문화체육부에 의해 중요무형문화재 제108호로 '목조각장(木彫刻匠)'이 새로 지정됨에 따라 기능보유자로 인정된 박찬수씨(47·목아박물관장)는 지정번호인 108호가 공교롭게도 불교와 유난히 각별한 숫자라 기쁨이 더욱 크다고 말한다. 지난 89년 제14회 전승공예대전

에서 화려하면서도 정교하게 조각한 '법상'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불미전에서 대상상을 받는 등 박씨는 각종 대회 수상을 통해 이미 그 솜씨와 기량을 인정받아 온 인물.

보물 3점을 비롯 6천여점의 각종 조각품을 모은 목아박물관을 지난 90년 개관해 전국의 명소로 자리매김시킨 박씨는 국제포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포교

목아박물관에 6천여 조각품 전시 “온국민 삼귀의 이끄는 성보 만들터”

에도 열심이며 불교공부에도 남다른 열정으로 매진해 왔다. 두 아들이 대학에서 조각을 전공하고 있고 형 찬갑씨 등 5형제가 전부 조각에 정통하고 있는 예술가 집안으로 유명하다. 새벽 3시만 일어나 예불을 올린후 아침밥 먹은 때까지 4~5시간은 작업에 몰두한

다한 박찬수씨는 “수많은 전화로 인해 우리 선조들이 남긴 뛰어난 작품들이 대부분 소실되어 목각의 계보가 제대로 전승돼 내려오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고

목불조각의 계보를 장르별로 체계화시키는 연구를 필생의 과제로 생각하고 후진양성에도 전념하겠다는 목각예의 습관은 열정을 표출하고 있다. (속)

문화소식

한국문화 CI 10종 확정

문화체육부는 지난 12월 31일자로 한국문화 CI 10종 통합이미지(CI) 대상으로 불국사 석굴암, 한복, 한글, 김치 불고기, 태권도, 고려인삼, 탈춤, 종묘제례악, 설악산, 세계적 예술인 등 10가지 분야 최종 선정했다. 또 사물놀이 선비문화 창덕궁

‘보우스님은 과연 요승이었나.’ 지난해 11월부터 방영되고 있는 SBS TV의 대하사극 ‘임궽정’ (원작 홍명희)이 극중에서 보우스님(1515~1565)을 요승으로 표현해 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12월 3회분의 방영에서 보우스님은 성부님 법경으로 우뚝 대다가 갖바치 양주팔에게 혼 줄이 나고 문정왕후의 권세를 등에 업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악한 요승으로 표현되었던 것. 이 드라마를 처음부터 관심있게 보고 있다는 탐경스님(중앙승가대 1년)은 “아무리 드라마라고

SBS 사극 ‘임궽정’ 보우스님 왜곡

과연 요승이었나 “아니다”

하지만 불교의 증후로 인식되고 있는 보우스님을 한낱 무식한 중으로 표현해 갖바치에게 오히려

흔이 아니고, 왕실과 결탁해 사회를 어지럽힌다는 내용은 불교역사가 아닐 수 없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임궽정’의 연출자 김현영씨는 “드라마 내용의 대부분이 원작에 근거한 픽션이다. 이 드라마는 당시의 어려웠던 상황을 서민들의 시각에서 그려내고자 했기 때문에 보우스님 또한 상징적인 역할로 설정된 것이지 실제 불교를 왜곡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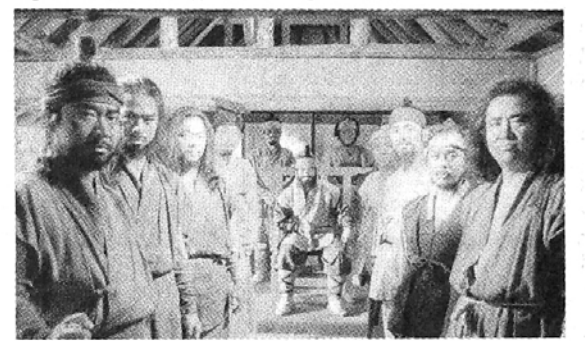
드라마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보우스님의 역할은 혼란스러웠던 시대적 상황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단역에 불과하다. 그러나 드라마 ‘임궽정’이 우리나라 최초의 리얼리즘 소설로 평가되고 있는 박초 홍명희의 소설 ‘임궽정’을 토대로 제작되었다는 사

역불정책으로 잘못 평가 승과설치 인재양성 기여

학자들의 비난과 비판에 불교적인 논리로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문정왕후의 그늘에 늘 가려 있었던 것 등이 요승으로 폄하시키는 원인이 되었던 것 같다”고 설명한다.

또 불교사 연구가 정의행씨는 “보우스님이 당시 왕실을 중심으로 불교를 펼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인 사리사욕이나 권력욕이 강했던 사실은 전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요승이라는 유학자들의 지적은 단순히 당시의 사회적 정치적 상황과 결부된 것이다”고 말하고 있다.

이같은 보우스님의 요승논란에 대해 학계에서는 (허용담) 등 스님의 저술을 중심으로 객관적인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



◇ 사진은 드라마 ‘임궽정’의 한 장면.

후원(비원) 등 3가지는 보조 CI로 선정했다.

작가 12인 ‘오늘의 소’

정축년 소해를 맞아 소를 주제로 한 특별기획전이 열리고 있다. 갤러리 사비나(736-4371)는 오는 26일까지 김봉준 박성환 황형성 이종구 이영수 조강춘씨 등 12명의 작가가 그린 ‘오늘의 소’를 전시한다. 특히 김봉준씨는 ‘신심우도-소’가 있었다’를 주제로 불교의 ‘십

찬불동요 창작곡 3집

좋은벗 풍경소리(대표 화평스님)에서는 겨울불교학교용 어린이 찬불동요 창작곡 제3집을 펴냈다. 이번 창작곡 테이프에는 제22차 겨울불교학교 어린이지도자연수회에서 교재로 발표되는 9곡을 포함 ‘고요한 밤’ ‘내마음의 눈꽃송이’ ‘기도’ ‘하얀 눈이 오네요’ 등 모두 16곡이 들어있다.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 고봉선 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약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 후 3년 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 등에 탁월한 효과

-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지요?
-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 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대구한방 : (053)564-3355

대구여래한방

최고의 효도 상품 - 파-워-봉 요법

신제품 보건복지부 허가 제558호 보건복지부 품목허가 제1호

- 파-워-봉 요법은 전혀 피부부를 찌르지 않고, 압통점(경혈)을 자극하여 통증을 조절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신속하고 획기적인 통양의학방법입니다.
- 파-워-봉 요법은 머리, 허리, 어깨, 목, 관절, 팔, 다리, 무릎 등 불편한 곳에 대고 지그시 눌러주면 즉석에서 편안해지는 느낌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 허리, 무릎, 관절 때문에 고생하시니까?

<반영구적제품>
<보급형 종합세트> 150,000원

- ※ 머리가 성하게 아프십니까
- ※ 목덜미가 항상 빠르십니까
- ※ 어깨가 몹시 아프고 팔이 뻐로 인물이랑이니까
- ※ 손과 팔이 저리십니까
- ※ 허리가 몹시 아프십니까
- ※ 팔꿈치가 몹시 아프십니까
- ※ 무릎에 힘이 생기고 아프십니까
- ※ 다리가 저리고 멍기니까
- ※ 엄지 발가락이 많이 아프십니까
- ※ 얼굴이 달아오르고 어지럽습니까
- ※ 늘 피곤하고 의욕이 없습니까
- ※ 복부가 항상 더부룩하고 몸이 무겁습니까
- ※ 전립선으로 고생하시니까
- ※ 치료를 받아도 재발 합니까

◎ 파-워-봉 / 원기 보존법 책자를 우송해 드립니다.

天一氣功研究會 파-워-봉 研究學會
전화문의 02) 455-6944(대)

氣(기)는 생명력, 강한 기를 당신에게!

확실한 에너지 보충! 춘천 옥산가 天!

진장에 가장 중요한 물질인 뇌호르몬 분비를 활성화시켜 모든 병을 호전시킵니다.

- ★ 스트레스나 피로에 쌓인 직장인, 수험생에게...
- ★ 4,50대 주부의 화병, 불안, 신경질, 노화방지에...

꾸준히 사용해 보십시오. 참으로 잘 듣습니다.

난치병 치료에 한계를 느끼는 현대의학을 보완합니다.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결과
중국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불면증 96.9%, 심장질환자 92.9%, 귀울림 91.3%, 어지러움증 91.3%, 두통 83.3%, 고혈압 77.8%, 관절염 60%의 놀라운 치료 효과를 기록했다 (93. 2. 17 서울신문)

세계 유일의 진옥(眞玉)제품은 “옥산가”에서만 판매합니다.

서울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브랜딩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777-0105 (우편판매)

한국 불교 전통 (범음·범패) 의식 연구원

본 연구원에서는 제반의식을 전수코자 스님 및 포교당, 사찰 운영하시는 분을 모시고 실천의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교육과정

제반의식(천도재, 49재, 예수재) 대령관육, 상주권공, 요잡, 어산작법 바라춤(대다라니, 사다라니)

한국불교 전통(범음·범패) 의식 연구원

문의 접수처 : 051-464-5997